

스페인어 부정맥락에서의 명사선행 부정양화사 'cualquier'와 전칭양화사 'todo'의 교호*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17), 「스페인어 부정맥락에서의 명사선행 부정양화사 'cualquier'와 전칭양화사 'todo'의 교호」,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3), 115-144.

초 록 Real Academia Española(2009)는 부정, 반대 또는 면제의 의미를 표현하는 술어가 출현하는 소위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명사에 선행하는 부정양화사 'cualquier'가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하며(cf. Fauconnier 1975; Horn 1989) 이러한 경우 'el más pequeño 또는 la más pequeña', 'el más mínimo 또는 la más mínima'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표현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양화사 'cualquier'는 전칭양화사인 'todo/toda'와 교호가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본 연구는 양화사 'cualquier'가 본유적으로 척도 양보성의 자질을 가짐을 주장하고 이 척도 양보성의 자질은 어휘적 부정의 맥락이 나타나는 화용적 척도상 최저점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상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전칭양화적 해석을 가짐에 따라 전칭양화사인 'todo/toda'와의 교호가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핵심어 부정양화사, 최소화 해석 유발자, 화용적 척도, 전칭양화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7669).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부정양화사(indefinite quantifier)인 'cualquier'가 어휘적으로 부정의 맥락(negative context)이 형성된 경우 관찰되는 전칭양화사인 'todo'와의 교호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인어의 'cualquier'는 부정양화사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영어의 'any'와 유사한 항목으로 간주되며 전칭양화사의 해석을 가지는 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영어의 'any'는 'not'과 같은 부정어가 출현하는 통사적 부정(syntactic negation)의 환경에서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특성을 갖는 반면 스페인어의 'cualquier'는 'no'와 같은 부정어가 출현하는 통사적 부정의 환경에서 부정극어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비통사적 환경인 어휘적 부정 맥락에서는 통사적 부정의 환경에서 기능하는 부정극어인 'ninguno/a'처럼 마치 부정극어와 같은 해석을 가지며 그와 동시에 전칭양화사 'todo/a'와의 교호는 물론 최하위의 척도를 함의하는 최상급의 표현인 'el más pequeño 또는 la más pequeña' 등과도 교호가 가능하여 최소화 해석 유발자(Minimizer)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형태-통사적으로 단수형인 'cualquier'가 어휘적 부정 맥락에서 전칭적 해석을 갖는 경우 전칭양화사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한 원인으로 이 두 요소 모두 비명시적 성격을 가지면서 단수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최상급과의 교호는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척도 양보성 자질을 가짐으로 인해 얻어지는 최하위의 척도 함의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화용적 관점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II. 명사에 선행하며 총칭적 해석을 갖는 cualquier의 일반적 특성

1.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출현하는 cualquier의 의미적 특성

RAE(2009, 1467)는 스페인어의 'cualquiera'가 비명시적 해석의 부정관계사(relativo indefinido de interpretación inespecífica)와 임의 혹은 자유 선택의 양화사(cuantificador de indistinción o de elección libre)¹⁾ (cf. Choi 2007;

Choi and Romero 2008; Giannakidou 2007; Menéndez-Bentito 2005; 2010; Alonso-Ovalle and Menéndez-Benito 2011) 두 가지의 용법을 갖는다고 기술한다. 이 두 용법 중 후자인 양화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변이형으로 ‘cualquier’가 존재하는데 이 변이형은 명사에 선행하는 ‘cualquier día, cualquier persona’처럼 사용되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cualquiera’의 어미탈락형(forma apocopada)이라고 간주한다. 양화사 ‘cualquiera’의 그 복수형은 ‘cualquieras’가 아닌 ‘cualesquiera’이며 예전에는 복수형 명사 앞에 ‘cualesquiera’가 자주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그 사용 빈도가 낮다고 기술한다.

RAE(2009, 1471)는 ‘cualquiera’가 명사에 선행하는 경우 순수히 사실적인 맥락에서는 그 출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그 출현 환경으로 (1)과 같은 양태적 맥락(contexto modal)을 요구한다고 언급한다.

- (1) a. Aparecerá en cualquier momento. (미래)
- b. Haría cualquier cosa por ella. (가정미래)
- c. Léete cualquier libro de estos. (명령법)
- d. cuando te dé cualquier consejo. (예상적 상황 해석의 접속법)
- e. si surge cualquier problema, de producirse cualquier disturbio. (조건절)
- f. Puede ocurrir en cualquier momento. (양태 조동사)
- g. Cualquier niño de diez años sabe manejar una computadora. (충칭적 맥락)
- h. antes de decir cualquier insensatez. (선행성 동반 맥락)
- i. previamente a cualquier decisión. (선행성 동반 맥락)
- j. anticipándose a cualquier movimiento. (선행성 동반 맥락)

RAE(2009, 1471)

위의 예문들에서는 ‘cualquier’가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 기능하며 (1a), (1f), (1i), (1j)에서는 전치사의 보어, (1b), (1c), (1d), (1h)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

1) 본 연구는 원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병기하는 경우 스페인어 저작물은 스페인어로 영어 저작물은 영어를 병기하고자 한다.

(1e)는 조건절의 내부 그리고 (1g)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등장하는 등 분포적 측면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양태적 맥락인 (1)의 예문들과 달리 다음 (2)의 예문들은 부정(negación), 반대(oposición), 면제(exención) 등의 의미를 갖는 술어가 출현하는 맥락이며 이러한 맥락에서는 ‘cualquier’가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하고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하여 ‘el más pequeño(또는 la más pequeña)’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RAE는 기술한다.

- (2) a. Ha quedado cerrada (cualquier/toda) posibilidad de retroceso.
- b. Aunque evitó cualquier referencia concreta, no había dudas acerca de hacía dónde apuntaban sus invectivas.
- c. Nos prohibió hacer cualquier comentario.
- d. Se abstuvo de hacer cualquier insinuación.
- e. Eran personas bien intencionadas, ajenas a cualquier interés de lucro.
- f. Subsisten al margen de cualquier influencia externa.
- g. Quedan libres de cualquier sospecha.

RAE(2009, 1472)

위 (1c)의 명령법이나 (1e)의 조건절과 같은 유형은 (3)에서도 보듯이 양태적 맥락이므로 ‘cualquier’가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다음 (4)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cualquier’대신에 ‘todo’의 사용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 (3) a. Dame cualquier excusa.
- b. Si me llama cualquiera de mis compañeros.
- (4) a. *Dame toda excusa.
- b. *Si me llama todo compañero mío.

RAE(2009, 1420)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cualquier’가 ‘todo’와의 교호를 보여주는 (2)의 예문들에서는 ‘cualquier’가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1g)에서는 ‘cualquier’가 총칭적 해석을 가지며 전칭양화사와 동일한 의미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todo’와의 교호는 가능하지만, 존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 해석의 유발자로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2)의 예문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즉, 총칭적 해석을 갖는 (1g)를 제외한 (1)의 양태적 맥락을 갖는 예문들에서는 ‘cualquier’가 총칭적 해석을 가지지 못하는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 기능하므로 ‘todo’와의 교호는 불가능하다. (3a,b)와 같은 양태적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자유 선택의 양화사 ‘cualquier’는 오히려 ‘alguna excusa, alguno de mis compañeros’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존재 양화의 해석을 가지며 전칭 양화의 해석은 갖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2)와 같이 사실적 맥락이면서 비통사적 부정인 어휘적 부정의 맥락이나 (1g)와 같은 총칭적 해석을 갖는 문장에서는 ‘cualquier’가 전칭양화의 해석을 가져서 ‘todo’와 교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태적 맥락이 아니라 어휘적으로 부정의 맥락이 형성된 경우 ‘cualquier’가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전칭양화사인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하면서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먼저 제 2장에서는 (1g)와 같이 긍정구문에서 ‘cualquier’가 명사에 선행하면서 총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전칭양화사 ‘todo’와 교호가 가능한 경우 관찰되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제 3장에서는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최소화 해석의 유발자로 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단수성을 갖는 부정 양화사 cualquier의 형태-통사적 특성

RAE(2009)는 ‘cualquiera’를 임의적 혹은 자유 선택의 성격을 갖는 양화사라고 규정하지만 이는 ‘varios, algunos, muchos, pocos’처럼 모호한 수량의 양화사로 기능하는 부정양화사(cuantificador indefinido)가 아니라 정확한 기수 양화사만을 허용하는 특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 (5) a. El Presidente del Tribunal había mandado reclutar en la plaza a dos

milicianos cualesquiera.

- b. Entre dos países cualesquiera del continente que no sean República Dominicana y Haití, el problema no tendrá mayor importancia.
- c. *varios milicianos cualesquiera.
- d. *muchas mercancías cualesquiera.

RAE(2009, 1469)

RAE(2009, 1469)는 기수사가 출현하지 않는 것과 임의성을 연관 짓지 않는다. 임의성이란 (5c)나 (5d)와 같이 양의 미명세를 의미하는 양화사의 특성이 아니며 ‘un libro cualquiera’와 같은 표현에서는 기수사인 ‘un’과 부정관사인 ‘un’이 동음이의어라는 사실에 비추어 단수성의 기수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즉, ‘unos libros cualesquier’는 자주 쓰이지도 않는 표현²⁾일 뿐 아니라 ‘un libro cualquiera’의 복수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a. (unos/*mis/*los/*estos) libros cualesquiera.
- b. (un/*cierto) libro cualquiera.

RAE(2009, 1469)

(6b)는 양화사 ‘cualquiera’가 부정(indefinitud)의 특성을 가지며 명시성(especificidad)을 갖는 ‘cierto’와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6a)는 한정성(definitud)과 명시성을 가지는 소유형용사 전치형, 정관사, 지시형용사와 공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6a)가 ‘unos’와 함께 적절한 표현으로 가능한 이유는 부정관사의 복수형이 가지는 모호한 양화성 또는 기수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용법이 아니라 ‘cualquiera’가 명사에 후행하는 경우 나타나는 부정관사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Sánchez(1999, 1041)도 ‘cualquiera’가 한정사로 기능하는 경우 다른 한정사를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7b)와 같은 표현은 일종의 부분적 구조로 보았다.

2) RAE(2009, 1468)는 ‘cualquiera’가 고어에서는 많이 쓰였지만 현대어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 (7) a. *Un cualquier libro.
b. Uno cualquiera de estos libros.

Sánchez(1999, 1041)

(7a)는 비명시적 단수성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명사에 선행하는 ‘cualquier’가 부정관사이자 수사인 ‘un’과 동시에 출현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cualquiera’가 명사에 후행하는 부정양화 형용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역시 (6b)와 (7b)를 통해서 단수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RAE(2009, 1457)도 기술하듯이, 임의성을 갖는 부정양화사란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 규정할 수 있는 그 정의적 근거가 다른 여러 대상 중 임의적으로 선택되는 하나(una entidad elegida arbitrariamente entre otras)를 언급하는 경우 사용되는 양화사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는 임의적 선택의 의미를 갖는 표현, 예를 들어 ‘아무거나 2개’, ‘아무 책이나 3권’, ‘아무나 4명’ 등과 같은 표현의 경우는 한정성과 명시성은 없지만 기수사를 통한 양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서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단수형 명사에 선행하는 ‘cualquier’는 비명시적 성격으로 단수성을 갖는 부정 양화사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3. 명사에 선행하는 cualquier와 todo의 호환성

다음 예문을 보자.

- (8) a. Cualquier ciudadano tiene derecho a elegir y a ser elegido.
b. Puede usted sacar de la biblioteca cualquier libro que le interese.
c. La bomba va a estallar en cualquier momento.

RAE(2009, 1470)

RAE(2009, 1470)는 (8a)의 ‘cualquier ciudadano’는 ‘모든 시민(todo ciudadano)’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8b)의 ‘cualquier libro’는 ‘todos los libros’의 해석이 없으며 (8c)도 ‘todo’의 의미³⁾를 가질 수 없다고 기술한다. 앞에서 살펴본 (1)의 예문들과 비교해보면 (8a)는 총칭적인 맥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8b)와 (8c)는 각각 양태 조동사의 출현과 미래 혹은 잠재적 예상을 의미하는 양태적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즉 (8a)와 같이 총칭적 맥락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1g)가 보여주는 것처럼, ‘cualquier’는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9) a. Todo hombre es mortal.
b. Cualquier hombre es mortal.

Sánchez(1999, 1037-1038)는 ‘todo’와 ‘cualquiera’가 전칭양화사에 속하며 가산명사의 양화를 담당한다고 한다. 먼저 ‘todo’가 사용된 예문을 보자.

- (10) a. He visto a tus amigos. Todos me preguntaron por ti.
b. Todos los novios de Luisa son estudiantes.
c. Todos te admiran.
d. Todo hombre es mortal.

Sánchez(1999, 1039)

Sánchez(1999, 1039)는 (10a), (10b), (10c)에서는 한정된 명시적인 집합에 대해 양화가 이루어지며 그 범위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코 모든 현존 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에 대한 언급은 아닌 것으로 기술한다. (10a)에서 ‘todos’는 대명사로 사용되어 그 양화영역은 자신에 선행하는 명사구인 ‘tus amigos’이며, (10b)에서 ‘todos’는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구인 ‘los novios de Luisa’가 양화 영역이 되며, (10c)에서는 명시적으로 양화영역이 문장 내에서 명사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법 외적인 담화 환경과 관련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10d)의 경우는 한정적이고 특정한 사람들의 한 집합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이루어진 명사구가 모든 가능한 사람들(todos los hombres posibles), 즉 사람이라는 조건이 부여될 수 있는 모든 대상(cualquier

3) 즉, RAE(2009, 1470)는 “cierto estallido va a producirse en todo momento futuro”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ente al que pueda atribuirse la condición de ‘hombre’)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a)-(10d)에서 관찰되는 바처럼 양화사 ‘todo’는 단수형과 복수형에서 그 의미는 유사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 (11) a. Todo hombre aspira a la felicidad.
b. Todos los hombres aspiran a la felicidad.

Sánchez(1999, 1039)

Sánchez(1999, 1039)는 만약 (11b)가 (11a)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Bustos(1986, 156)도 밝힌 바처럼, 담화와 관련된 사람의 집합이 너무 커서 모든 가능한 사람들의 총체와 등가적 의미를 갖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10a), (10b), (10c)가 명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10d)는 비명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때 ‘todos los hombres’는 구체적인 모든 개별체의 총합을 언급한 것이라면 (10d)와 (11a)의 ‘todo hombre’는 어떤 특정 또는 명시적인 개별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una clase)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todo’와 ‘cualquier’가 전칭양화사의 해석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우 개별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를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음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a. Todo hombre es mortal. (=10d)
b. Cualquier hombre es mortal.

총칭적 해석을 갖는 (12b)의 ‘cualquier’는 전칭양화의 해석을 가지며 결코 특정 개별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부류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부류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총칭적 해석이므로 (12a)처럼 전칭양화 ‘todo’와의 교호에 있어서 전혀 문제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3) a. Cualquier lechuza caza ratones.
“Any owl hunts mice”.

- b. Cualquier lechuza puede cazar ratones.
“Any owl can hunt mice”.
- c. Alguna lechuza caza ratones.
“Some owl hunts mice”.
- d. Ninguna lechuza caza ratones.
“No owl hunts mice”.
- (14) a. *Compró cualquier libro.
“I bought any book”.
- b. Compró cualquier libro que tuviera dibujos.
“He bought any book that had pictures”.

Arregui(2006, 2)

영어에서 자유 선택의 의미를 갖는 ‘any’와 유사성을 갖는 스페인어의 ‘cualquier’는 비양태적 문장에서는 출현할 수 없지만(cf. 14a), LeGrand(1975)가 언급하듯이 관계절을 취하는 경우는 그 출현이 가능(cf. 14b)하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14b)가 (14a)와 달리 접속법의 형태가 관계절의 내부에 출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a)와 달리 (14b)에서는 접속법 형태를 포함한 관계절이 ‘cualquier’가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 기능하도록 기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cf. Bosque 1999)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접속법이 가지는 양태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정이 가능하다. 한편, Arregui(2006, 3)는 (13c)와 (13d)에서 ‘alguna’와 ‘ninguna’는 영어의 ‘any’에 해당하는 해석은 없다고 기술한다. 이는 Dayal(1998)이 영어의 ‘any’가 자유 선택의 해석과 부정극어적 해석의 측면에서 어휘적으로 모호함을 갖는다고 언급하는 것에 기초하여 스페인어의 ‘cualquier’ 역시 단순히 전칭양화사로 보기에 어렵다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 (15) a. Si escucha cualquier ruido, llamará a la policía.
“If he hears any noise, he will call the police”.
- b. Si escucha cualquier ruido, aparecerá en el Libro de Records de Guinness.
“If he hears any noise, he will appear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rregui의 기술내용처럼, (15a)는 만약 그가 어떤 소음을 듣는 경우 그 소음이 아주 하찮거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경찰을 부를 것이라는 의미이며, (15b)는 그가 모든 소음들을 들을 능력이 있으면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15a)는 만약 그가 모든 소음들을 들을 능력이 있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는 의미는 어색하지만, (15b)는 어떤 소리라도 들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거의 인지 불가능한 일련의 소음이 재생되어 그가 그 중 하나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는 거의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Arregui가 기술하는 (15)의 의미적 특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5a)와 (15b)의 ‘cualquier ruido’가 총체성을 드러내는 ‘todos los ruidos’의 의미나 ‘todo ruido’ 즉, 모든 종류의 소음을 아우르는 전칭 양화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algún ruido’와 같은 존재 양화의 해석에 더 가까우며, 실제로 ‘algún ruido’로 대체하여도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lguno’와 같은 양화사를 사용하여 수량의 미명세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cualquier’가 사용되어 단수성이 실현된 (15a)와 (15b)의 조건절은 공통적으로 ‘어떤 작은 소음이라도 들으면’의 의미, 즉 정도에 있어서 최저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태성을 갖는 조건절과는 별도로 주절의 문장이 갖는 의미, 즉 화용적 맥락이 문장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은 결국 ‘cualquier’를 문장의 전체 맥락과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쉽게 그 의미적 특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의 (12)의 예문을 다시 보자.

- (12) a. Todo hombre es mortal. (=10d)
- b. Cualquier hombre es mortal.
- (16) El hombre es mortal.

Jiménez Juliá(2009)는 라틴어의 주격과 관련된 의미적 특징으로 한정적인

특성을 소개한다. 그는 라틴어 ‘Homo mortalis est’는 (16)과 같이 정관사를 사용하는 문장이어야 하며 ‘un hombre, algún hombre’ 또는 ‘cualquier hombre’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언급은 부정관사인 ‘un’과 부정형용사인 ‘algún’, 그리고 ‘cualquier’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며 주격명사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화자의 지식세계 내에서 언급되는 것에 대한 확인의 차원이라면 정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6)은 한정적 특성을 갖는 개별체인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성과 관련된 정관사의 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a)나 (12b)는 정관사의 부재로 인해 한정성을 가질 수 없는데, (12b)에서 ‘cualquier’는 비한정적 성격의 부정양화사라는 정의적 특성에 입각하여 정관사를 허용하지 않고 (12a)의 ‘todo’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12a)에서는 ‘todo’가 전칭양화사이므로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해석을 갖고 (12b)는 부정양화사 ‘cualquier’의 특성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죽는다’라는 해석을 갖지만 (16)은 정관사의 한정성이 결여된 체 ‘사람은 죽는다’라는 해석을 얻는 것이다. 즉 ‘cualquier’가 총칭적 해석을 가져서 전칭양화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소한의 조건이 사람’인 경우를 일컬으므로 해석상 부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척도상의 최저점을 화용적으로 함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어에서 주격의 요소가 양화사를 사용하지 않고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16)과 같이 정관사를 동반하여 단수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스페인어 주격 명사구와 관련된 특성이며,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양화사 ‘todo’나 ‘cualqui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관사 없이 모두 단수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2)의 모든 예문들에서 단수성을 갖는 ‘cualquier’는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전칭양화사 ‘todo’와 호환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cualquier’가 술어가 의미하는 화용적 맥락의 척도상에서 최저점을 함의하므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최소화의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칭양화사 ‘todo’는 형용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대명사로도 기능하지만

‘cualquier’는 반드시 명사에 선행하는 요소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페인어에는 중성 명사가 없다는 사실과 ‘cualquiera’ 역시 중성대명사의 자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이 비복수형으로 ‘cualquier cosa’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todo’와 교호가 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17) a. Se enfada por (cualquier cosa/todo).
b. Se cree (cualquier cosa que/todo lo que) se le dice.

RAE(2009, 1471)

- c. No se enfada por (cualquier cosa/todo).
d. No se enfada por ninguna cosa.

(17a)가 ‘모든 것에 화를 낸다’는 해석을 갖는 경우는 ‘todo’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화를 낸다’는 ‘cualquier’의 특성에 기인한 해석이다. 여기서 ‘cualquier cosa’가 ‘어떤 것에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미미한 것에도’라는 최저점의 척도를 함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거대한/큰/중요한 것에도’와 같은 최고점의 척도와 관련된 해석을 가질 수는 없다. (17a), (17b)의 두 예문과 (1g)의 총칭적 해석을 갖는 구문에서는 ‘cualquier’의 해석이 ‘어떤 ○○도’라는 척도상의 최저점의 의미를 통해 명사가 나타내는 부류의 모든 구성소들을 아우르는 전칭양화사 ‘todo’와의 교호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화용적 특성은 RAE(2009, 1472)가 언급하는 부정, 반대, 면제의 맥락인 (2)의 예문들에서 ‘cualquier’가 ‘todo’와 교호가 가능한 이유가 의미적으로 부류의 모든 구성소들을 아우른다는 점, 즉 척도상의 최소치 또는 최저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 대해 화낸다’는 의미의 동사 ‘enfadarse por’가 “아주 소소하고 미미한 것에도 화를 낸다”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는 화용적으로 ‘모든 것에 화를 낸다’는 의미와 유사성을 갖는다. (17a)에서는, 따라서, ‘cualquier’가 최소화의 해석을 유발하며 전칭양화사와 교호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17b)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17a), (17b)에서는 ‘todo’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의 의미를 가지지만 ‘cualquier cosa’가 사용되는 경우는 ‘그 어떤 소소한 것에도’와 같

이 최소화 의미로 통하여 전칭적 해석을 갖는 양화구로 기능하므로 전칭양화사 'todo'와 의미적 호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한 생각할 부분은 (17a), (17b)가 통사적으로 긍정 구문이며 'cualquier cosa'가 최소화 해석을 가지면서 술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존재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즉 (17a)에서는 화를 내는 대상이 존재하며 그 정도가 척도상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화를 낸다는 전제가 이루어지며, (17b) 역시 그 내용이 아무리 하찮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다는 전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RAE(2009)가 소개하는 (2)의 예문들에서 'cualquier'는 최소화의 해석을 가지지만 술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존재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적 요소로 작용한다. 즉, (17)에서 'cosa'라는 부류에 속한 모든 구성소들의 존재를 아우르면서 그 부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7c)는, 부정극어가 사용된 (17d)와 달리, 존재의 부정을 의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통사적 긍정 구문에서 총칭적 해석을 갖는 'cualquier'는 전칭양화사 'todo'와 동일한 작용역의 환경에서 전칭양화사의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통사적 부정 구문에서는 'cualquier'와 'todo'가 부정어인 'no'에 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양화부정이 되므로 통사적 부정 구문인 (17d)의 부정극어인 'ninguna'와 같이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최소화의 해석도 가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cualquier'는 통사적 부정 구문인 (17c)에서 부정극어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양태성을 동반하는 통사적 긍정 구문에 출현하는 자유 선택의 양화사 'cualquier'는 'todo'와의 교호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부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cualquier'와 'todo'의 교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화용적 척도상 최소화 해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최소화 해석이 술어가 의미하는 부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함의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어휘적으로 부정의 맥락을 갖는 구문에서는 'cualquier'가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하면서 술어가 의미하는 부류의 존재

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 3 장에서는 이렇게 부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함의하는 최소화 해석 유발자인 ‘cualquier’가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적 특성으로 전칭양화사 ‘todo’와 의미적 호환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부정의 맥락에서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하는 cualquier와 todo의 교호

1. 최상급 표현과 교호를 갖는 최소화 해석 유발자 cualquier

최소화 해석 유발자란 최소량을 지칭하거나 척도의 종결점 또는 최저점을 언급하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종종 강조의 기능을 드러낸다(cf. Fauconnier 1975, Horn 1989).

다음 예문을 보자.

(18) a. The faintest noise bothers my uncle.

b. The loudest noise doesn't bother him.

(19) a.  “the loudest”
x1
x2
“the faintest”

b.  Scale S
x1
x2
“low” superlative

Fauconnier(1975)에 따르면 만약 어떤 소음 x_2 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소음 x_1 역시 피해를 줄 것이므로 척도상 가장 낮은 요소에 대해 명제가 참이면 척도상의 모든 요소가 참이 되므로 (18a)의 최상급 표현이 전칭양화적 해석을 갖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19a)와 같이 ‘loudest’를 최상의 척도, 그리고 ‘faintest’를 최하위의 척도라고 가정한다면, (18a)는 $R(x_2) \supset R(x_1)$ 라고 볼 때, 그 논리부정인 $\sim R(x_1) \supset \sim R(x_2)$ 는 (18b)에 해당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Fauconnier의 언급처럼 R과 관련된 척도상에서 최상위 요소는 $\sim R$ 과 관련된 척도상에서 최하위의 요소가 되므로 해당

최상급은 전칭 양화의 해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을 (18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스페인어 예문인 (20a), (20b)에서도 최상급인 'el menor ruido'와 'el mayor ruido'가 (18a), (18b)의 'the faintest noise'와 'the loudest noise'와 각각 동일한 특성을 보이며 'ruido/noise'의 부류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을 가짐에 따라 전칭양화사인 'todo'와 교호가 가능하며 화용적 척도상 최저점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cualquier'와도 교호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20) a. (El menor/Cualquier/Todo) ruido molesta a mi tío.
b. (El mayor/Cualquier/Todo) ruido no molesta a mi tío.

Fauconnier는 이러한 척도의 원칙은 (21)과 같은 예문에서는 'the faintest'와 'any'간의 자유로운 교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22)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호가 불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 (21) a. My uncle can hear (any/the faintest) noise.
b. My uncle would hear (any/the faintest) noise.
(22) a. My uncle is so deaf that he wouldn't hear (any/*the faintest) noise.
b. My uncle is so deaf that he wouldn't hear the loudest noise.

Fauconnier는 (18b)처럼 부정의 맥락인 (22b)에서는 척도 역전 효과(scale reversal effect)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소리를 듣는 척도상의 최저점이 'the faintest'이므로, 듣지 못하는 척도상의 최저점은 'the loudest'가 되므로 (22a)에서는 'the faintest'의 출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3) a. He can stand (any/*the faintest) noise.
b. He can stand the loudest noise.
(24) a. He can't stand any noise.
b. He can't stand the faintest noise.

Fauconnier는 (21a), (21b)의 'hear'와 달리 (23)-(24)의 'stand'는 화용적 척

도로 인해 소리의 시끄러움이 척도상의 최저점으로 간주되어서 (23b)는 (24b)처럼 부정을 통해 척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Fauconnier의 언급처럼 소위 ‘faint, slight, small, tiny’ 그리고 최상급 ‘least’ 등과 같은 최소량(minimum quantity)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대부분 양의 부재(zero quantity)를 의미하는 양화적 특성이 있지만 (21)과 (23)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긍정의 맥락에서 단순히 최저점을 나타내는 최상급 ‘the faintest’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전칭적 해석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 ‘hear’와 ‘stand’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통사적 부정의 맥락이 사용된 (22)와 (24)에서도 해당 동사의 화용적 척도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용적 척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24b)를 고려해보면 이 문장에서 최소의 양을 의미하는 형용사의 최상급 ‘the faintest’는 화용적 척도상 최저점을 의미하여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인 ‘ruido’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auconnier는 다음의 (26b)는, 엄밀하게 꼭 그러한 함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급 ‘the faintest’가 사용되어 존재의 부정을 나타낸다고 한다.

- (25) a. Even the faintest noise bothers him.
b. I didn't hear even the faintest noise.
- (26) a. Martha didn't hear even the loudest noise.
b. Martha didn't hear even the faintest noise.
c. Martha didn't hear any noise.

Fauconnier는 형용사의 최상급은 (25)에서 긍정의 맥락이나 부정의 맥락에서 ‘even’이 출현하여도 의미에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25)와 같이 ‘even’은 (26a)와 (26b)에서 모두 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특성이운데 (24a)는 ‘the loudest’가 사용되는 경우로 소음의 존재를 함의하면서 Martha가 듣지를 못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26b)는 ‘the faintest’가 사용되어 Martha가 들은 소음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26c)의 ‘any’는 척도상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모호성을 가짐에 따라 (26a)와 (26b) 두 예

문에 모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Fauconnier는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통사적 부정의 맥락이지만 최상급을 사용한 (26a)와 (26b) 두 문장 중에서 양적 부재를 전제하는 표현은 화용적 척도상 최저점을 의미하는 최상급이 사용된 (26b)라는 점을 알 수 있다.

Fauconnier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처럼 형용사의 의미가 양의 부재와 가까운 의미라 할지라도 문장내의 술어로 등장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화용적 척도는, ‘hear’와 ‘stand’와 관련된 예시에서 보듯이, 최고점과 최저점이 각 동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따라 각 형용사의 최상급이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증거는 어떤 양이나 가능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맥락에서는 화용적 척도상의 최저점의 의미를 갖는 최상급이 그러한 의미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통사적 부정의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화용적 척도상의 최저점을 의미하는 cualquier의 전칭 양화사와의 교호

다음 예문을 보자.

- (27) a. Martha no oyó #cualquier/CUALQUIER ruido.
 b. Martha no oyó ningún ruido.
 c. Martha no oyó siquiera el menor ruido.

Arregui(2006, 1)도 언급하듯이 ‘cualquier’는 일반적으로 부정문에서는 출현이 불가능하며 메타언어학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용법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영어 예문인 (26c) ‘Martha didn’t hear any noise’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예문은 (27b)이며 (27a)가 결코 될 수 없다.⁴⁾ 즉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cualquier’는 존재의 부정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낼 수

4) 이러한 메타언어학적 부정은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과소평가의 의미를 함의하는 최하위점의 척도를 함의할 수 있다고 Bosque(1999)는 소개한다.

(i) Quevedo no escribió cualquier novela picaresca, sino El Buscón.

없으므로 부정 극성을 갖지 않는다. (27c)의 경우는 (26b)의 등가적 표현으로 여기에서 사용된 ‘siquiera’는 (26a), (26b)에 사용된 영어의 ‘even’처럼 통사적 부정구문에서 최상급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척도 초점사로 ‘aun’과 동일한 분포를 갖는 표현이다.

한편 (27)과 같은 통사적 부정 구문과 달리 ‘siquiera’는 ‘al menos’와 같은 최소화 해석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스페인어에 존재한다. Alonso-Ovalle(2009)는 통사적 부정과 달리 다음과 같은 양태적 맥락에서 ‘siquiera’가 ‘al menos’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 (28) a. ¡Tú y yo, Rusca, comeremos siquiera una vez al día lo bueno de la tierra!
- b. Hala, mujer, toma un café con leche siquiera.
- c. Ojalá siquiera una mínima parte de los trabajadores y trabajadoras respondieran de la forma en que lo han hecho ellos.
- d. La compañía tiene que pagar siquiera el 60 por ciento del salario completo promedio.
- e Los conservadores han pedido (...) que se modifique siquiera puntualmente el Título VIII ...

Alonso-Ovalle(2009, 8-9)

위 예문들을 보면 (28a)에서는 미래, (28b)는 명령법, (28c)와 (28e)는 감탄과 기원과 관련된 접속법의 출현환경, (28d)는 양태조동사의 사용이 이루어져 모두 양태적 맥락으로 판단된다. 이 예문들에서 사용되는 ‘siquiera’는 양보성과 함께 ‘al menos’, 즉 최소의 척도를 의미하는 부사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siquiera’는 술어가 의미할 수 여러 대안들 중 ‘적어도’ 또는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기능한다. 이에 대해 Bosque(1999)는 ‘siquiera’가 양태적 맥락에서만 등장하므로 양태성 극어의 성격을 갖지만 최상급 형태인 ‘al menos’는 양태적 맥락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Bosque의 설명에 비추어보면 (27c)에서 최상급인 ‘el menor’는 양태성과 무관한 최상급의 양화사로 기능한다는 점과 부정 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Arregui가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cualquier'가 'ninguno'와 같은 부정극어의 특성이 없다고 언급하는 것처럼, 전칭양화사 'todo'는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부정 극성을 갖지 않으므로 존재의 부정을 의미할 수 없다(cf. 17a-17d). 이는 전칭양화사 'todo'가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갖는 작용역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 (29) a. No hay ningún ruido.
b. No hay el menor ruido.
c. *No hay todo/cualquier ruido.

(29c)는 'todo'와 'cualquier'가 통사적 부정구문에서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해 해석을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29b)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얻게 되는 최소화 해석은 통사적 부정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siquiera'와 'cualquier'는 두 요소 모두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최소화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Bosque(1999)는 양태적 맥락을 유발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30) 비실현 양태성 유발자(Irrealis modal trigger)
- A. 미래시제
- a. *Lo hice siquiera una vez.
b. Lo haré siquiera una vez.
c. *Te llamé cualquier día de estos.
d. Te llamaré cualquier día de estos.
- B. 가정미래, 조건의 접속사
- a. *La viste siquiera una vez.
b. Si la vieras siquiera una vez.
c. *Contigo me fui a cualquier lugar recóndito.
d. Contigo me iría a cualquier lugar recóndito.
- C. 명령법(Imperatives)
- a. Dame siquiera una oportunidad.
b. Escóndelo en cualquier lugar inaccesible.

D. 수사의문문(Rhetorical interrogation)

- a. *Te llamó siquiera una vez.
- b. ¿Te llamó siquiera una vez?

(31) 본유적으로 어휘자질과 관련된 술어

- A. 내포술어(buscar, aceptar, pedir, esperar, querer, intentar, planear, perseguir, merecer)
 - a. Acepto cualquier sugerencia.
 - b. *Tengo en la mesa cualquier sugerencia.
 - c. Su labor merece siquiera un pequeño reconocimiento.
 - d. *Su labor muestra siquiera cualidades muy positivas.
 - e. Le he [pedido] a usted <cualquier> novela de Vargas Llosa.
 - f. *Le he comprado a usted cualquier novela de Vargas Llosa.
- B. 어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술어(negar, rechazar, prohibir, evitar, dudar, reticente)
 - a. Dudo que esa persona exista siquiera.
 - b. Solo pretendía evitar cualquier debate con González.
 - c. Era reticente a cualquier colaboración.

Bosque(1999)는 ‘siquiera’와 ‘cualquier’의 출현 환경이 양태적 맥락과 관련 된다고 기술하는데 (30)과 (31)의 내용을 보면 전자는 동사의 굴절 정보나 통사 적 구문의 유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어휘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0)에 기술된 내용은 앞 2장의 (1)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본 양태 적 맥락의 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조건에서 ‘siquiera’는 최소화의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cualquier’는 앞 2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존재적 해석을 가지며 최소화 해석은 가질 수 없는 자유 선택의 양화사로 기능한다. 여기서 이 제 우리는 Bosque가 (31B)를 통해 어휘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술어가 양태 성 유발자로 기술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31B)에서는 ‘siquiera’와 ‘cualquier’가 모두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 출현하는데 전자는 주절의 동사가 어휘적 부정의 의미(no creer)를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 해석의 편향(cf. Alonso-Ovalle 2009)으 로 인해 부정극어인 ‘ni siquiera’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보이면서 어휘적 부정 의 맥락에서 부정극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자

신의 특성인 최저점의 척도성을 가지고 해석상 마치 부정극어와 같은 성격으로 기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⁵⁾ 이러한 현상은 (28)에서 보듯이 통사적 부정이 없는 양태적 맥락에서 'siquiera'가 최소화의 해석을 갖는 환경과 (2)의 예문들에서 관찰되는 'cualquier'가 최소화의 해석을 갖는 환경이 서로 상보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30)과 (31)은 광의의 의미에서 모두 양태적 맥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30)과 (31A)는 'siquiera'가 최소화 해석이 가능한 환경이지만 'cualquier'는 불가능하며 (31B)과 같은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는 그 반대로 'siquiera'는 최소화 해석이 불가능하며 'cualquier'는 오히려 최소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siquiera'는 부정극어의 특성이 있으므로 통사적 부정에서는 'al menos'와 같은 최소화의 해석이 없으며 (31B)과 같은 어휘적 부정에서도 최소화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siquiera'와 'cualquier'가 동일한 (31B)의 조건, 즉 어휘적 부정의 의미를 갖는 술어에 의해 양태성을 가진 이 두 요소가 양태성 유발자에 의해 통사적으로 인허된다는 점(cf. Jackendoff 1971; Progovac 1994; Kadmon and Landman 1993; Chierchia 1995; Krifka et al. 1995)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siquiera'와 'cualquier'가 갖는 양태성이란 어원적으로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의 형태인 '-quiera'가 담당하는 자질이며 'siquiera'는 (30)과 (31A)에서 부사로 기능하는 척도양보초점양화사로 기능하지만(cf. Alonso-Ovalle 2016; Crnić 2011a; 2011b) (31B)에서는 어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에 의해 성분통어가 되는 위치에 등장하므로 부정적 해석의 편향을 보여 부정극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cf. Alonso-Ovalle 2009). 한편 어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에 의해 성분통어가 되는 위치에 'cualquier'가 출현하는 것은 'siquiera'의 특성과 같지만 'cualquier'는 부정극성이 없으며 형용사로써 명사를 수식하는 척도양보초점양화사로 기

5) 본 연구는 어휘적 부정에 대한 환경에서 출현하는 최소화 해석 유발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관계로 'dudar'와 같은 동사가 가지는 'no creer'의 특성과 관련된 통사적 부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능한다. 따라서 전자가 ‘al menos’와 같은 부사구와 호환성이 있는 경우와 후자가 형용사의 최상급 구조와 호환성이 있는 것은 이들 두 요소가 문장 내에서 갖는 양태적 맥락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cualquier’가 최소화 해석 유발자로 기능하는 양태적 맥락이란 동사 굴절정보나 통사적 구문에 의해 촉발되는 (30)과 (31A)와 같은 양태적 맥락이 아니라 (31B)처럼 순수히 어휘적 부정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상급 표현은 전칭양화사 ‘todo’와 함께 형태-통사적 측면이나 의미적 측면에서 본유적으로 양보성 자질은 내포하지 않는다. 결국 ‘cualquier’가 갖는 척도와 관련된 양보성 자질은 어휘적 부정의 맥락을 갖는 문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부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함의하는 최소화 해석을 갖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양보성 자질과 관련된 특성이다. 비록 최소화의 해석을 갖는 최상급 구조는 양보성을 갖지는 않지만, ‘cualquier’는 자신이 갖고 있는 척도초점양보사의 자질로 인해 화용적 맥락에 의거하여 전칭양화사 ‘todo’가 갖는 전칭적 의미와 호환성을 갖는 것이다. 통사적 부정의 경우 전칭양화사 ‘todo’는 작용역의 문제가 해석의 걸림돌이 되지만 어휘적 부정의 환경에서는 그러한 작용역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전체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2)의 예시들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등가적 예시인 다음 (32)-(3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2) a. 어떤 후퇴가능성도 차단됐다.
- b.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피했지만, 그의 독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틀림없었다.
- c. 우리에게 어떤 코멘트도 그는 금했다.
- d. 그는 어떤 암시도 삼갔다.
- e. 어떤 이익에도 관심이 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 f. 어떤 외부 영향과도 상관없이 생존한다.
- g. 어떤 의심에서도 자유롭다.
- (33) a. 모든 후퇴가능성이 차단됐다.
- b. 모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그의 독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틀림없었다.

- c. 우리에게 모든 코멘트를 그는 금했다.
- d. 그는 모든 암시를 삼갔다.
- e. 모든 이익에 관심이 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 f. 모든 외부 영향과 상관없이 생존한다.
- g. 모든 의심에서 자유롭다.

‘cualquier’가 갖는 척도 양보성에 기반하여 번역한 (32)의 문장들은 조사 ‘-도’의 사용에 있어서 긍정적이며 최소화의 해석과 양보성을 가지지만(cf. Choi 2007, 98) 이러한 조사가 사용되지 않고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 -ex) ‘#어떤 후퇴가능성이 차단되었다’, ‘*그는 어떤 암시를 삼갔다’- 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면 어휘적이나 형태적으로 양보성이 없는 전칭양화사인 ‘todo’의 어휘-의미적 특성에 기반한 (33)의 번역은 (32)와는 반대로 ‘-도’의 사용은 부정적이며 -ex) ‘#모든 후퇴가능성도 차단됐다’, ‘#그는 모든 암시도

- 6)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사 ‘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본 연구에 해당하는 용법은 아래의 4번 항목에 해당한다.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 「1」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옷감을 만져도 보았니?/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 「2」 (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여)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쁘다/나이 삼십에 집도 있고 차도 있다/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 「3」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찬밥도 좋으니 빨리만 먹게 해 주세요/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괜찮습
니다.
- 「4」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그
사람은 낮 놓고 기억 자도 몰라/시간이 없어서 세수도 못 하고 왔다.
- 「5」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너는 신문도 안 읽니?
- 「6」 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달도 밝다/성적이 그렇게도 중요한가/그 말은 백 번도 더 했잖니?/에이, 맛도
없다/참, 사람도/서울에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지.

삼갔다’- 각 문장에서 통사적 지위에 따라 주격과 목적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는 ‘cualquier’가 갖는 척도 양보성이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전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와 통사적 부정 구문에서 부정극어를 사용하여 전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스페인어 구문을 한국어의 번역에 적용하여도 조사 ‘-도’를 허용하는 것⁷⁾은 통사적 부정 구문에서 부정 극어가 전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27)이나 (29)등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 (34) a. Juan no compró ningún libro.
b. 후안은 그 어떤 책도 사지 않았다.
c. *후안은 그 어떤 책을 사지 않았다.

(34a)는 통사적으로 부정의 맥락을 형성하는 문장으로 부정극어인 ‘ningún’이 등장하며 이 문장의 번역은 한국어에서 조사 ‘-도’를 허용하는 것을 볼 때 (32)의 예문들이 조사 ‘-도’를 허용하는 점과 공통적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극어적 성격은 (2)의 예문들에 사용된 ‘cualquier’가 최하위의 척도를 의미하면서 전칭적 해석을 가지면서 전체 부정을 의미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27)의 메타언어학적 부정과 같은 다음 (35)의 문장은 (34a)와 다를 수 있다.

- (35) 그는 아무 책이나 사지 않았다.

(35)는 구매행위의 부정, 즉 ‘아무 책도 사지 않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cualquier’가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부정극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만 화용적 척도상의 최저점을 함의하며 이러한 특성이 전칭양화사의 교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7) “어떤 -도”가 보여주는 특성을 볼 때 ‘cualquier’가 갖는 양보성에 대해 영어의 ‘even’에 해당하는 요소인 ‘aun’이 비외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cf. Giannakidou 2007; Heim 1984)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어에서는 통사적 부정의 맥락에서 양보성을 갖는 ‘siquiera’가 부정극성을 가질 경우 ‘aun’과 교호를 보이기 때문이다.

IV. 맺는말

인식서법(epistemic modality)은 부정양화사가 갖는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명사 선행 부정양화사인 ‘cualquier’가 학교문법에서 ‘cualquiera’의 어미탈락형이라고 소개되는 요소이지만 실질적으로 ‘cualquier’가 갖는 여러 특성 중 본 연구가 다룬 최소화 맥락 유발자로서의 용법에 대한 교수-학습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ualquiera’는 자유 선택의 의미를 갖는 양화사라는 점에서 부분격 구조와 ‘cualquiera’가 갖는 형태-통사론적 특성 즉 접속법을 포함하는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부정관계사의 용법 -‘quienquiera, dondequiera, comoquiera 등’- 과의 유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어에서 ‘cuantoquiera’라는 부정관계사가 오히려 널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그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으며 그나마 고어에서 흔적이 발견된다(cf. Rivarola 1976).

‘cualquier’ 그리고 ‘cualquiera’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유 선택 혹은 무작위 선택(random choice)의 의미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cf. Choi 2007; Choi and Romero 2008; Menéndez-Benito 2005, 2010)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명사에 선행하는 cualquier가 부정의 맥락, 특히 통사적 맥락이 아닌 어휘적 부정의 맥락에서 자유 선택이나 무작위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들 맥락에 의해 인허되는 양태성 극어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칭양화사 ‘todo’와의 교호를 살펴봄으로써 스페인어의 ‘cualquier’와 영어의 ‘any’와의 단순 비교가 아닌 스페인어의 개별 언어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스페인어 어휘-문법교육에 있어서도 ‘cualquier’의 특성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Alonso-Ovalle, L.(2009), “Even and Biased Questions: The Case of Spanish *Siquiera*”, <http://journals.linguisticsociety.org/proceedings/index.php/SALT/article/view/2540/2288>.
- Alonso-Ovalle, L.(2016), “Are all concessive scalar particles the same? Probing into Spanish *siquiera*”, *Proceedings of SALT*, Vol. 26, pp. 185-204.
- Alonso-Ovalle, L. and P. Menéndez-Benito(2011), “Expressing indifference: Spanish *un NP cualquiera*”,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XXI*, pp. 333-347.
- Arregui, A.(2006), “Cualquier, exception phrases, and negation”, in J. Doets and P. González(eds.), *Romance Languages and Linguistic Theory 2004*, pp. 1-22.
- Bosque, I.(1999), “Sobre la gramática de los contextos modales. Entornos modales y expresiones inespecíficas en español”, *Actas del XI Congreso de Alfal*, Las Palmas de Gran Canaria, pp. 43-57.
- Bustos, E.(1986), *Pragmática del español: negación, cuantificación y modo*, Madrid: 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a Distancia.
- Chierchia, G.(198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G. Carlson and F. Pelletier(eds.), *The Generic Book*,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76-223.
- Choi, J.(2007), “Free Choice and Negative Polarity: A Compositional Analysis of Korean Polarity Sensitive Ite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hoi, J. and M. Romero(2008), “Rescuing existential free choice items in episodic sentences”, in O. Bonami and P.C. Hoffner(ed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7*, Vol.7, pp. 77-98.
- Crnič, L.(2011a), “Getting ‘even’”,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 Crnič, L.(2011b), “On the meaning and distribution of concessive scalar particles”, in Lena Fainleib, Nick LaCara and Tangsook Park(eds.),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NELS)*, Vol. 41, Amherst, MA: GLSA. pp. 143-156.

- Dayal, V.(1998), “Any as inherently mod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21, pp. 433-476.
- Fauconnier, G.(1975), “Pragmatic scales and logical structures”, *Linguistic Inquiry*, Vol. 6, pp. 353-375.
- Giannakidou, A.(2007), “The landscape of EVE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25, pp. 39-81.
- Heim, I.(1984), “A note on negative polarity and downward entailingness”, in C. Jones and P. Sells(eds.),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ern Linguistic Society(NELS)*, Vol. 14, Amherst, MA: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p. 98-107.
- Horn, L.R.(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endoff, R.(1971), “Modal structure in semantic representation”, *Linguistic Inquiry*, Vol. 2, No. 4, pp. 479-514.
- Jiménez Juliá, T.(2009), “Notas sobre determinantes definidos y no definidos”, *Boletín de lingüística*, Vol. 21, No. 32, Caracas dic. 2009.
- Kadmon, N. and F. Landman(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16, No. 4, pp. 353-422.
- Krifka, M. et al.(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N. Carlson and F.J. Pelletier(eds),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24.
- LeGrand, J.E.(1975), “Or and Any: The semantics and syntax of two logical operat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Menéndez-Benito, P.(2005), “The Grammar of Choi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 Amherst.
- Menéndez-Benito, P.(2010), “On universal free choice items”, *Natural Language Semantics*, Vol. 14, No. 1, pp. 33-64.
- Progovac, L.(1994), *Negative and positive 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l Academi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Rivarola, J.L.(1976), *Las conjunciones concesivas en español medieval y clásico*:

Contribución a la sintaxis histórica española, Tübingen: Max Niemeyer.
Sánchez, C.(1999), “Los cuantificadores: clases de cuantificadores y estructuras cuantificativas”, in I. Bosque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1025-1128.

142

143

광 재 용

한국외국어대학교

jkpat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7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9일

Key words indefinite quantifier, minimizer, pragmatic scale, universal quantifier